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사사기 4:14]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4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일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지난 설교시간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곧 징벌과 동일한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축복일까요? 간단하고 단순한 선택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한 세대 이상 깊어지지 않습니다. (순종은 이전 세대가 전해준 삶을 바탕으로 지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가 많고 이기적입니다. 사탄의 거짓은 달콤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맛보세요! 제한과 모든 구속들을 풀어버리고 당신의 자유를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세요." 하지만 진실을 요한복음 8:34절에 적힌바 대로입니다. "34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34). 시스라 장군을 앞세운 야빈 왕을 압제로 인해 평범한 마을 생활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행하는 것조차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도시 성문 앞은 싸움, 적개심 그리고 분노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공중장소의 생활은 두려움이 짓게 깔려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8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사사기 5:8a).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들의 거절(이방신 숭배)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 분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남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력과 분별력을 겸비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사역을 감당토록 지명하셨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 전쟁에서 승리할 구체적인 계획, 장소 그리고 구체적인 승리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우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외에 그 어떤 것에도 결코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 분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 분께서 시작하신 일(우리의 구원)은 결단코 완성하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바락은 여전히 하나님과 협상하려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 요구를 들어주시는 경우에 한해서 말이죠." 믿음의 순종엔 "만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락을 그의 원래 자리로 돌려보냈습니다. 궁극적인 영광, 결정적인 승리의 일격; 적장의 처형은 여성(드보라)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 분의 뜻과 그 분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락은 전쟁터에 나갔고 드보라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그들의 영적인 책임들을 뒤로 미룹니다. 전쟁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잇사갈,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르우벤은 주저하며 아무일도 하지 않았고 길르앗은 무관심했습니다. 단과 아셀은 너무 바빴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일로 간주하며 마지 못해 대답하고 있습니까? 하기 싫은 자원봉사 정도의 일입니까? 아니면 섬기길 간절히 원하십니까? 내 안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믿음은 모험입니다.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분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영광을 향해 돌진할 수 있는데 왜 조용히 내리막길을 가야 합니까? 이 모든 일의 요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느냐? 그리고 그 분의 명령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메로스는 저주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주님의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큰 희생이 따릅니다. 뒤로 물러난 부족들 중 이 후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역에 특별한 기여를 시도하지 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을 위해 살았고 주님을 위해 희생할 위험을 감수하길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든 면에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건기에 하나님께

서 하늘을 여셔서 기손 강바닥에 맹렬한 물줄기를 만드셨고 급류로 인해 땅은 온통 진흙투성이가 됐습니다. 병거들은 수렁에 빠지고 적군들이 혼란해지자 이스라엘은 그들은 전멸시켰습니다. **전쟁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여 나아간다면 우리는 승리의 편에 서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스라와 야엘: 야엘은 시스라를 안정하고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려고 나섰습니다. 그가 잠들었을 때 텐트 말뚝으로 그의 두개골을 박살냈습니다! 그녀는 축복받은 여자입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죽이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악의 종 시스라가 하나님의 종 야엘로 인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 사탄이 패하고 멸망토록 최후의 일격을 가하십니다. 그 분의 죽음, 승천 그리고 재림!

결론: 찬양의 노래

이스라엘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불안이 아닌 평화, 폭력이 아닌 번영! 두려움이 아닌 시민 질서와 이동의 자유! 이 승리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주님으로 끝났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고있지 아니하십니까?